

# 서양 선교사와 근대한국 민속연구 제1의 물결\*

육영수\*\*

## 〈차 례〉

- 문제의 제기
- 서양 선교사의 초창기 민속연구 개척
- 존스·헐버트와 민속연구의 확장과 심화
- 맺음말

## [국문초록]

한국 근대민속학의 발생학적인 기원을 일본제국이 뿌린 불량한 식민주의의 싹을 뽑아버리고 건강한 민족주의 영양분으로 품종 개량·접붙이기해서 얻은 달고도 쓴 열매로 인식하는 것이 국내 학계의 지배적인 연구 경향이다. 이런 시각에서 일본 관계 학자와 한국인 지식인에 앞서서 한국 민속자료를 채집·탐구했던 서양 선교사들의 학문적인 성과는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었다. 근대한국 민속연구의 초창기를 선도했던 서양 선교사의 역할과 학문적인 영향을 재조명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양적인 공백과 질적인 약점을 보완·수정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목표이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일단의 서양 선교사들이 어떻게 근대한국 민속연구의 기초공사에 주춧돌을 보냈는지 속담, 민담, 세시풍속, 신화, 무속 등 여러 분야에 남긴 발자취를 추적한다. 후반부에서는 한국 근대민속학의 창출과 개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조지 존스(G. H. Jones)와 호머 헐버트(H. B. Hulbert)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생산했던 학문적 성과와 그 역사적 유산을 되짚어 본다. 주요 분석 자료는 한국(조선)에 체류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간행·

\* 이 논문은 한국역사민속학회 제267차 월례발표회(2023년 12월 16일)에서 “한국 근대민속학의 또 다른 계보: 서양 선교사-일본 관계학자-한국 민속학자, 연결 짓기 또는 다시 뒤섞기”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공개한 초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을 맡아준 주영하, 제언과 질문을 던져준 조현범, 정창원, 이대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내 글의 장단점과 한계를 짚어준 익명의 심사위원님 3명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한다. 다만, 이 글에 포함되었을지도 모를 사실적 오류와 해석적인 편견은 필자 것이다.

\*\*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참여했던 영어 월간지/학술지 『코리안 리포지터리』, 『코리아 리뷰』, 『영국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트랜잭션』 등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 선교사들이 남긴 한국 민속연구의 발자취는 생략하거나 무시해도 될 타자의 시각이 아니라 꼼꼼히 재발견되어야 할 한국 근대민속사의 전사(前史) 또는 도입부이다. 둘째, 알렌, 아담스, 존스, 헐버트 등은 전통과 근대, 문명과 야만, 중심·중양과 지방·향토, 이성과 미신, 기록문화와 구술문화 등의 이분법적인 구별 짓기를 통해 한국민속을 인류 문명의 진화론적인 연쇄 사슬에 꿰맞춰 넣는 서구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셋째, 서양 선교사가 선창했던 ‘근대한국 민속연구 제1의 물결’과 서로 밀고 당기며 일본 관계 학자가 식민 담론으로 (재)창출한 ‘제1.5의 물결’과 한국 지식인이 민족 담론으로 다시 띄운 ‘제2의 물결’이 만드는 단절과 연속의 주름살을 실증적으로 관찰해야 할 매우 어렵고도 절실한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주제어] 근대한국민속, 한국속담, 한국민담, 한국무속, 호머 헐버트, 조지 존스

## 1. 문제의 제기

근대한국학 분야에서 누가 제일 먼저 ‘최초의’ 글을 발표했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은 중요하고도 동시에 어리석은 작업이다. 왜냐하면 “기원을 찾는 작업은 …당대의 역사를 구상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원형이라고 생각되는 사건만을 선별하는 카드놀이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sup>1)</sup> “서로 다르고 성격상 이질적이며 지속적이지 못한 사상과 행위”를 과거-현재-미래의 연쇄 사슬로 꿰뚫어 그 전후 관계와 인과론적인 연관으로 인식하려는 것은 진보 사관과 실증 사관이 결합한 저급한 학문관이다. 연구자들을 ‘기원의 망령(chimère de l’origine)’에 사로잡힌 편집광적인 포로로 내모는 진보 사관과 실증 사관 외 제3의 힘은 민족사관이다. 근대한국학의 발생학적인 기원을 ‘일본제국이 뿌린 불량한 씨앗과 갈래를 건장한 민족주의 바람과 영양분으로 품종 개량·접붙이기해서 얻은 달고도 쓴 열매로 추수하려는 것’이 국내 학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근대한국 민속학의 태동과 갈래에 대한 논쟁도 일본제국의 식민지 한국학

1) 로제 샤프티에, 백인호 옮김, 『프랑스혁명의 문화적 기원』, 지식올만드는지식, 2015, 6~7쪽.

vs. 주체적인 우리 학문(국학(國學))이라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문화 심층 연구를 위한 심화사전 편찬 사업”의 한 결과물로 간행한 『한국 근현대 100년과 민속학자』<sup>2)</sup>도 이런 인식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책의 주제는 “조선의 영구한 지배 확립을 목적으로” 한국의 민속과 풍속을 채록/정리하려는 일본 관제 학자에 맞선 일단의 한국 지식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각성으로” 전래의 전통문화를 발굴·연구하면서 1930년대를 전후로 근대민속학이 형성되었다는 명제로 집약된다.<sup>3)</sup> 이런 문제의식으로 “우리 민속과 문화를 지켜내려는 내부자(한국인 학자)”를 앞장세우고, “지배하는 입장에서 본 [식민시대] 일본인의 시선”을 그 뒤에 끼워 넣고, “타자로 관망하여 바라본 서양인 관찰자의 시선”을 맨 끝쪽에 배치한다. 이런 의도적인 편집체제는 당사자/경쟁자가 아닌 한가로운 ‘제3 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 관제 학자와 한국 지식인에 앞서서 탐구했던 한국 민속연구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위와 같은 ‘기원의 망령’이라는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해독제는 ‘계보학’이다. 푸코에 따르면, 계보학은 “종(種)의 진화를 닮지 않고 민족의 운명을 설계하지도 않고” “지나간 사건을 그 고유한 산란(散亂) 속에서 유지하기 위해” “우연과 미세한 일탈을 확인하는 작업이다.”<sup>4)</sup> 이 명제를 한국 근대민속학의 계보에 적용한다면, 일단의 서양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를 마음에 두고 우연히 시나브로 발을 담가 갈지자로 홍보하며 호지부지 갈무리한 파편적인 기록이 뿔어내는 불규칙하게 흩어진 파동(波動) 그 자체가 한국 근대민속학 계보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한국 민속학의 시작에 관한 원조 논쟁을 멈추고, 그 역사적 성격과 특징을 식민지 담론 vs. 민족주의 담론이라는 이분법 체계에서 해체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근대민속사에서 오랫동안 주변인 취급을 받았던 서양 선교사들이 남긴 선행업적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최근에 등장했다. 19세기

2) 김일권·최석영·정승교, 『한국 근현대 100년과 민속학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3) 김일권 외, 위의 책, 총론 5쪽, 7쪽.

4) Michel Foucault, “Nietzsche, Genealogy, History,” in Paul Rabinow 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 Pantheon Books, 1984, p.81, pp.87~88.

말~20세기 초반에 걸쳐 외국에서 번역·간행되었던 한국 설화/민담집의 사료적 가치와 의의를 추적한 논문이 그것이다.<sup>5)</sup> 서양 선교사가 채록한 전래 동요와 속담/수수께끼에 투영된 오리엔탈리즘을 비평한 글들도 있다.<sup>6)</sup> 그리고 국내 학계에서는 주로 한국사 연구자, 한글학자, 문학-예술비평가로 소개되었던 호머 힐버트를 한국민속 연구자로 재발견하려는 흥미로운 아주 최근 논문도 눈에 띈다.<sup>7)</sup> 양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빈약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위의 일련의 선행연구는 서양 선교사와 한국 근대민속학의 결코 생략할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에 주목하여 그 후속 연구를 자극하고 물꼬를 텃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서양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간헐적이지만 지속해서 수행했던 한국 민속학 연구의 종합적인 지형도를 그리는데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와 하부 장르인 속담, 민담과 무속, 세시 풍습 등의 유기적인 세밀도를 스케치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한국 민속연구의 초창기를 선도했던 서양 선교사의 역할과 학문적인 영향을 재조명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양적인 공백과 질적인 약점을 보완하고자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일단의 서양 선교사들이 어떻게 근대한국 민속연구의 기초공사에 주춧돌을 보탰는지 속담, 민담, 세시풍속, 신화, 무속 등 여러 분야에 남긴 발자취를 추적한다.<sup>8)</sup> 후반부에서는 한국 근대민속학의 창출과 개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

5) 오윤선, 「근대 초기 한국설화 영역자들의 번역태도 연구-Allen, Griffis, Hulbert, Carpenter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3, 2012; 오윤선, 「19세기 말~20세기 초 영문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연구」, 『우리문학연구』 41, 2014; 오윤선, 「외국인의 한국설화 다시쓰기 양상: 호랑이 소재담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3, 2014.

6) 김승우, 「19세기 말 의료선교사 엘리 랜디스(Eli B. Landis)의 한국민속 연구와 동요 채록」, 『한국민요학』 39, 2013; 유경민, 「한국어교육의 오늘: 개신교 선교사가 정리한 한국어 속담과 수수께끼 연구 - 외국인의 한국 언어문화 습득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59, 2014.

7) 이유정, 「호머 힐버트의 한국 민속연구와 영역 설화집으로서의 『THE KOREA REVIEW』」, 『비교한국학』 29-2, 2021; 장경남, 「호머 힐버트의 『Omjee, The Wizard-Korean Folk Stories』 연구」, 『기독교와 문화』 16, 2021. 등 참조.

8) 1878년에 영국 런던에서 창립된 〈민속학회(The Folk-Lore Society)〉가 1890년에 엮어서 출간한 『폴크로어 핸드북(The Hand-book of Folklore)』에 따르면, 민속 분야는 미신적 믿음과 행위(Superstitions Belief and Practice), 전통적인 관습(Traditional Customs), 전통적인 이야기(Traditional Narrates), 민중의 이야기들(Folk-Sayings) 등으로 대분류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속담(proverb)'은 '민중의 이야기들'의 하위분야, '세시풍속(Ceremonial Customs)'와 '전래동화(Nursery Tales)'는 '전통적인 이야기'의 하위분야로 각각 소분류 된다. 주영하가 위 서적을 알려

을 했지만,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조지 존스(George Heber Jones)’와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생산했던 학문적 성과와 그 역사적 유산을 되짚어 본다. 주요 분석 사료는 한국(조선)에 체류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간행·참여했던 영어 월간지/학술지 『코리안 리포지터리』, 『코리아 리뷰』, 『영국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트랜잭션』 등이다. 서양 선교사가 근대한국학 만들기에 어떤 몫을 담당했고 그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탐구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sup>9)</sup>를 확장·심화함으로써, 그 계보학을 좀 더 두텁고 입체적으로 다시 쓰도록 제안하려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2. 서양 선교사의 초창기 민속연구 개척

영미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한국 민속학 연구에 첫발을 디딘 독점적인 선구자는 아니었다. 이들에 앞서 프랑스 가톨릭 신부들도 한국속담과 민담 등 민속자료에 관심을 가졌었다. 리델(Felix Clair Ridet, 1830-1884) 신부가 1881년에 요코하마에서 출간한 『한국어 문법(*Grammaire Coréenne*)』(1881)에는 조선의 민담과 속담 등이 한국어 쓰기·말하기의 본보기로 포함되어 있다.<sup>10)</sup> 러시아 작가 미하일로프스키(Nikolai Garin Mikhailovsky, 1852~

주었는데,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한국에서 활약하던 선교사·학자들이 이 책을 읽고 참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주영하, 「민속」, 『한국학 학술용어』(한국학중앙연구원 편저),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327쪽 각주 30번 참조.

9) 이 글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최신 사례를 선별적으로 들자면 육영수, 「서양 선교사가 주도한 근대한국학의 발명과 국제화, 1870년대~1890년대」, 『역사민속학』 55, 2018; 「미국-영국 선교사와 외교관이 주도한 근대한국학 전문화와 시스템 만들기, 1900~1940년: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Korean Branch* 분석을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61, 2021; 「19세기 말~20세기 전반 서양 선교사들의 조선 문화예술 담론 만들기」, 『한국사학사학보』 46, 202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역, 『선교사와 한국학』,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22.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역, 『탐험가, 외교관, 선교사: 서구 한국학의 형성 주체와 문화적 토양』, 소명출판, 2022. 등 참조.

10) 필자가 몰랐던 이 사실을 조현범이 알려 주었다. 이유정, 「호머 헐버트의 한국 민속연구와 영역 설화집으로서의 『THE KOREA REVIEW』」, 2021, 205~206쪽 각주 2번 참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상필, 「과리의방전교회가 남긴 동서양 문명교류의 흔적-Grammaire Coréenne(1881) 소

1906)도 1898년에 한반도 북부 백두산 일대를 여행하면서 한국 설화를 채록하여 기록으로 남겼다.<sup>11)</sup> 뒤늦게 한국에 파견된 독일 가톨릭 신부들이 영상으로 기록한 민속 사료도 귀한 가치가 있다.<sup>12)</sup> 다만, 이런 경우들은 한국민속에 대한 개별적인 지적 호기심 수준에 머문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했다. 그러므로 한국민속에 대한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연구를 여러 해에 걸쳐 주도한 집단은 영미권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였다고 지목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확보할 수 있는 1차 사료를 근거로 말하자면,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 민속 자료에 대한 초기 단계의 조사는 ‘세기말’에 출간된 『코리안 리포지터리』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한국속담과 민담 채집에 우선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처음으로 한국속담을 채집하여 그 뜻을 영어로 옮기고 해설한 인물은 성공회 소속 선교사이며 의사인 랜디스(E. B. Landis)였다. 그는 『코리안 리포지터리』 1896년 8월호에 처음으로 한국속담 40개를 채집하여 뜻풀이했고, 같은 해 10월호에 60개를 추가 소개했다. 서양 속담 “한 개 들로 두 마리 새 잡기”와 비슷하다는 “팽도 먹고 알도 먹고”라는 한국속담을 1번째 속담으로 시작하여<sup>13)</sup>, “강철(별뿔별)이 간 곳에는 가을도 봄이다.”라는 100번째 속담으로 랜디스는 일단락한다.<sup>14)</sup> 그는 자신이 어떤 경로와 수단으로 속담을 모았고, 누구의 도움으로 그 의미를 파악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일단의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 민담 채집에 좀 더 높은 열정을 쏟았다. 『코리안 리포지터리』에는 이들이 채집한 대략 7~8편의 민담이 수록되었다.<sup>15)</sup>

제 단형 고전서사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2014. 참조.

11) 안상훈, 「백두산 설화의 전승과 연행양상-가란-미하일로프스키의 조선 기행문을 중심으로-」, 『중앙어문학회 어문논집』 61, 2015. 참조.

12) 박일영, 「독일인 선교사가 본 20세기 초 한국의 민속-한국문화 민속을 바라본 그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51, 2013. 참조.

13) E. B. Landis, “Some Korean Proverbs,” *The Korean Repository* Vol. 3, 1896.8, p.218.

14) Landis, “Some Korean Proverbs,” *The Korean Repository* Vol. 3, 1896.10, p.309.

15) 구체적인 목록은 Horace N. Allen, “Legends of Chong Dong and Vicinity”, 1895.3; Allen, “The Wise Fool or The Korean Rip Van Winkle”, 1895.9; Allen, “Folk Lore: A Reward to Filial Piety”, 1895.12; G. H. Jones, “The Magic Cat”, 1896.2; X, “The Straight Hook”, 1897.5; X, “Pak-The Spoon Maker”, 1897.11; X, “The Beauty and the Beast: A Korean Version”, 1898.6; X, “Sin the Squeezer”, 1898.11 등. 이유정(2021), 206쪽 각주 4번 참조.

익명의 필자(X)와 함께 알렌(Horace Newton Allen)이 『코리안 리포지터리』에서 선보인 민담 대부분을 모아서 소개했다. 특히 알렌은 배경 해설을 덧붙여서 “처음으로 영역된 한국의 설화 자료”로 평가받는 한국민담 모음 번역서를 1889년에 미국 뉴욕에서 간행했다.<sup>16)</sup> 그가 『코리안 리포지터리』에 자신의 해설을 생략하고 채집·번역한 일련의 민담이 앞선 번역서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 발굴한 것인지는 나중에 검증해야 할 숙제이다.

알렌이 소개한 민담의 소재와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그가 “똑똑한 바보 또는 한국의 립 밴 윙클(Rip Van Winkle)”이라는 제목을 붙인 민담은 힘 있는 영의정을 사촌으로 둔 ‘바보’ 사촌이 지방 원님 자리를 얻어 백성을 쥐어짜서 부를 축적하고 중앙정부에서 보낸 관찰사를 기발한 꾀로 물리친다는 이야기이다. “효도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의 민담은 조선의 한 왕이 변장하고 한양 남산골로 시찰을 나갔다가 효심이 깊은 가난한 선비를 만나 알게 된 가족 사연에 감동하여 그를 특별 과거시험으로 귀하게 채용했다는 미담이다.<sup>17)</sup> “재주 있는 무인”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견된 중국(명나라) 장군이 나약한 조선 왕(선조)을 쫓아내려는 야심을 품었지만, 용맹하고 지혜로운 조선 장군의 계략에 굴복하였다는 무용담이다.<sup>18)</sup> 조선 사회를 지탱했던 ‘효도와 충성’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민담 형식으로 각색한 소품이다.

알렌의 조선 민담에 대한 호기심은 특이한 풍습인 무속에 대한 귀동냥과 구경으로 이어졌다. 그는 1896년 『코리안 리포지터리』에 “조선의 풍습: 무당”이라는 글을 투고했다.<sup>19)</sup> 그가 “직업적인 여성 엑소시스트(a paid female exorcist)”라고 번역한 무당은 4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된 제도이며 신앙’에서 유래했다.<sup>20)</sup> 귀신을 쫓아 병을 고쳐주거나,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주고, 조상의 음덕으로 후손의 복을 빌어주는 무당의 주요 고객

16) Horace N. Allen, *Korean Tales: Being a Collection of Sto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Folk Lore together With Introductory Chapters Descriptive of Korea*, New York: G. p. Putnam, 1889. 이 번역서에 대한 평가는 이유정(2021), 206쪽 각주 3번.

17) Allen, “Folk Lore: A Reward to Filial Piety”, pp.462~463.

18) Allen, “Skillful Swordsman”, pp.463~465.

19) Allen, “Some Korean Customs, the Mootang”, *The Korean Repository* Vol. 2, 1896.4.

20) Ibid., pp.69~70.

은 하층민이지만 일부 평민도 그녀가 보여주는 신비한 치료력과 예언력을 믿는다. 알렌은 무당의 곳을 현장에서 직접 본 것처럼, 그녀가 사용하는 방울 달린 요령과 청동으로 만든 징, 형형색색 비단 깃발, 짚으로 만든 인형 등과 춤사위를 상세히 묘사한다. 알렌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대왕’은 유명한 무당이 그를 위해 한강 바닥에 숨겨놓은 ‘비자금’으로 새로운 수도 한양을 건설했다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로 이 글을 맺는다.

『코리안 리포지터리』에서는 짧게 간헐적으로 소개되었던 한국민담은 그 후속 영어 월간지인 『코리아 리뷰』에서 더 길게 더 많이 등장한다. 비슷한/겹치는 시기에 한국학 전문학술지를 표방하며 출범한 『영국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트랜잭션』과 순수선교 전문지 지향하는 『코리아 필드』 등과의 경쟁을 피해서 틈새시장을 노리려는 『코리아 리뷰』의 편집 전략이 일반교양 독자의 흥미를 끄는 민담/풍습/전설/영웅담 등을 게재하게 된 배경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sup>21)</sup> ‘조선 민속잡지’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코리아 리뷰』에는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민담-전래풍습이 소개되었다. 이유정이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잡동사니란(Odds and Ends)】이라는 표제 아래 총 122편의 축약된 형태의 이야기가 실렸다. 그리고 독립적인/개별적인 제목이 붙은 좀 더 길이가 긴 민담 41편이 게재되었다.<sup>22)</sup> 분류 기준의 모호함과 논쟁성을 참작하더라도 대략 160편 내외의 한국민담이 영어권 독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서양 선교사가 한국인으로부터 채집한 민담을 손수 번역·소개하고 간략한 해제를 붙인 사례이다. 독일 태생으로 1900년에 빅토리아 장로교 선교사 자격으로 내한하여 부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엔겔(Gelson Engel, 1864~1939)은 『코리아 리뷰』 2월호에 “어느 여성의 피, 또는 산수 문제”와 “한국의 거인” 두 편의 번역소개로 시작하여 “나무꾼, 호랑이와 토끼”를 포함한 총 9편의 한국민담을 1905년에 집중적으로 게재했

21) 『코리아 리뷰』의 창간 배경, 잡지 성격, 참여 필진 등에 대해서는 이영미,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1901~1906) 연구」, 『역사민속학』 60, 2021, 참조.

22) 상세한 목록, 필자, 줄거리 요약 등은 이유정, 「호머 헐버트의 한국 민속연구와 영역 설화집으로서의 『THE KOREA REVIEW』」, [표 1]: 226~237쪽 & [표 2]: 237~249쪽 각각 참조.



다.<sup>23)</sup> 앵겔은 “나무꾼, 호랑이와 토끼” 우화는 다른 나라의 다른 버전으로도 읽을 수 있는 익숙한 소재이지만 “전적으로 독창적이며 독자적인” 한국민담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비교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사유 양식 발전 양상의 닮은꼴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라는 해석을 그는 덧붙였다.<sup>24)</sup> 앵겔 외에 애덤스(J. E. Adams)와 언더우드(L. H. Underwood) 등 다른 선교사들도 민담 채집에 합류했다.<sup>25)</sup>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한국인들도 한국민담 작업에 직접 동참·협조했다는 사실이다. 이정원은 “소 변신술”과 “몇 편의 한국민담” 등 4편을 1905년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3편, 1906년에 1편 등 모두 8편의 민담을 『코리아 리뷰』에 소개했다.<sup>26)</sup> 그의 뒤를 이어 고평익은 “바보 같은 이야기”를 1906년 5월호에서 소개했다.<sup>27)</sup> “바보 같은 이야기”는 시집간 딸을 방문하는 할머니가 배고픈 호랑이를 만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 속임수에 걸려 잡아먹히고, 할머니 옷으로 변장한 호랑이가 딸-사위 집에 침입하여 그들도 잡아먹으려다 되려 죽임을 당했다는 잘 알려진 구전동화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준 튼튼한 동아줄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위는 해님이 되고 아내는 달님이 되었다는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민담에 왜 “바보 같은 이야기” 제목을

23) 이유정은 위 [표 2]에서 앵겔의 번역 민담 두 편을 누락시켰다. G. Engel, “A Woman’s Wit, or An Arithmetic Problem”과 “Korean Giants”, *The Korea Review* Vol. 5 (1905.2) 등이 그것이다. 앞의 민담은 한 부부가 깊은 산 속에서 도적을 만났으나, 똑똑한 아내가 30명의 어리석은 산적들을 산수 문제로 속여 무사히 풀려났다는 이야기이다. 뒤의 민담은 힘이 세고 체격이 웅장한 거인 의형제가 깊은 산속에 사는 거인 3형제와의 힘겨루기에서 패배하면서 겸손하고 더 현명해져서 귀향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유정이 [표 2] 246쪽에서 “Tales of the Road”의 채록자를 앵겔이라고 적었지만, 이는 이정원(Yi Chong-Wun)의 오류이다. 이하 본문에서 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 민담의 줄거리 요약을 생략한다. 해당 민담에 대한 이유정의 요약 내용을 참조하라.

24) G. Engel, “Woodcutter, Tiger and Rabbit”, p.445 하단 각주 참조.

25) 이유정은 [표 2] 249쪽에서 언더우드의 “호랑이와 아기(A Tiger and the Babies)”가 『코리아 리뷰』 1906년 4월호에 실렸다고 잘못 기재했다. 실제로 이 민담은 1906년 5월호에 게재되었다.

26) Yi Chong-Won, “The Magic Ox-Cure,” *The Korea Review* Vol. 5, 1905.5, pp.179-183; “Fragments From Korean Folk-lore” : “A Trio of Pools”, “A Fox Trap” & “An Unworded Bequest”, *The Korea Review* Vol. 5, 1905.6, pp.212-215; “Fiercer Than the Tiger: A Nursery Tale”, *The Korea Review* Vol. 5, 1905.7, pp.263-264; “His Father,” *The Korea Review* Vol. 5, 1905.12, pp.470-471.

27) Ko Piung Ik, “A Foolish Tale”, *The Korea Review* Vol. 6, 1906.5, pp.180-182. 이유정이 [표 2] 249쪽에서 이 민담이 실린 호수를 5월로 착각해서 표기했다.

붙였는지 채록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정원과 고평익이 한국민담을 서양 선교사에게 중계·해석해 주었던 지식 에이전트 또는 ‘토착 정보원(native informant)’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속담과 민담 채록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의 세시풍속/민속놀이도 알고 싶어 했다. 『코리아 리뷰』 1905년 2월호 실린 ‘석전(石戰, 돌팔매 싸움)’이 그 증거이다. 험버트가 쓴 글로 짐작되는데, 석전은 일종의 ‘패싸움(side-fight)’ 형식의 나라 게임으로, 고구려 시대 평안도에서 유래되어 고려 시대에 제도화되었다고 그 역사적 기원을 더듬었다.<sup>28)</sup> 주로 농한기인 연초에 텅 빈 벌판 등지에서 돌팔매 패싸움이 벌어지는데, 필자는 평양, 송도, 서울 등을 이 민속놀이를 유명한 곳으로 꼽았다. 수천 명의 구경꾼을 끌어들이는 유희가 낭자하고 폭력적인 이 싸움은 외국의 다른 곳에서는 유사한 놀이를 찾아볼 수 없는 “순전히 토속적인(native) 기원”을 갖기 때문에 외국 요소와 뒤섞이지 않은 “순수한 한국적인 삶”을 관찰하는 데 중요한 풍습이라고 평가했다.<sup>29)</sup>

1905년에 YMCA 협동 총무 신분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던 미국 선교사 브로크만(Frank M. Brockman)도 세시풍속을 조사했다. 그가 1906년 『코리아 리뷰』에 발표한 “한국 새해 민담”이 그 보고서이다.<sup>30)</sup> 브로크만은 고대 그리스 신화가 당대인의 종교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세시풍속도 “민족 정서의 올바른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새해에 관한 민담의 이모저모를 이해하면 한국 민속 전통과 정신세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이다. 정월 초하루 첫 달이 뜨는 시간에 악령이 집집을 돌아다니다가 벗어놓은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 주인은 병에 걸린다고 믿는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감춤으로써 화를 피한다. 지붕 위에 체(sifter)를 올려놓으면 악

28) Hulbert?, “The Stone-fight,” *The Korea Review* Vol. 5, 1905.2, p.49. “『코리아 리뷰』와 달리 『코리아 리뷰』의 글 대부분에 저자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모두 험버트가 썼기 때문이다.”라는 진술을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반박하기 어렵다. 이영미,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1901~1906) 연구」, 2021, 145쪽.

29) Ibid.

30) Frank M. Brockman, “Korean New Year Folklore,” *The Korea Review* Vol. 6, 1906.2.

령이 그 구멍을 세는데 정신이 팔려 자정을 넘기기 때문에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월 대보름 이른 아침에 차가운 술을 마시면 그해 청각이 밝아지며, 이날 오곡(대마, 수수, 쌀, 밀, 콩)을 먹으면 그 한 해는 풍요롭게 되고, 아이들이 온갖 종류의 견과류를 먹으면 피부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등 미신적인 풍습이 유난히 많다고 브로크만은 기록했다. “나의 선생의 추론에 따르면(according to my teacher’s reasoning)”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브로크만은 자기 주변의 한국인이 전해주는 것을 일종의 구술사를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했을 것이다.

특기할 사항은 서양 선교사들이 세시풍속에 만족하지 않고 ‘신비스러운’ 무속 분야에도 도전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소개했던 알렌의 “조선의 풍습: 무당”에서 피상적으로 관찰했던 주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분석한 글이 1903년 『코리아 리뷰』에 6편의 시리즈로 게재되었다.<sup>31)</sup> 험버트가 필자로 추정되는 이 연재물은 한국무속의 중심인물 무당과 판수의 역사적 유래, 그들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살풀이 굿과 미래를 예언하는 점괘를 푸는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거의 30페이지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의 이 글은 서양 선교사가 한국무속의 깊고 오묘한 세계에 뛰어들어 무속인이 한국 보통 사람들의 세계관과 일상생활에 끼친 영향력을 선구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일종의 미완성 작품인 이 글은 “한국 사회는 마법적인 힘(occult power)을 다루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두 명의 솜씨 좋은 사람(handicraft)의 축복 또는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유혹적인 첫 문장으로 연재를 시작한다.<sup>32)</sup> 영어로 “마법사(sorceress)”, “퇴마사(exorcist)”, “마녀(witch)”, “요술쟁이(wizard)”,

31) Hulbert(추정), “The Korea Mudang and Pansu (1)”, *The Korea Review* Vol. 3, 1903.4, pp.145~149; “The Korea Mudang and Pansu (2)”, *The Korea Review* Vol. 3, 1903.5, pp.203~208; “The Korea Mudang and Pansu (3)”, *The Korea Review* Vol. 3, 1903.6, pp.257~260; “The Korea Mudang and Pansu (4)”, *The Korea Review* Vol. 3, 1903.7, pp.301~305; “The Korea Mudang and Pansu (5)”, *The Korea Review* Vol. 3, 1903.8, pp.343~346; “The Korea Mudang and Pansu (6)”, *The Korea Review* Vol. 3, 1903.9, pp.385~389. 원문에 없는 일련번호는 필자가 편의상 붙인 것이다. 연재물의 마지막 글 “The Korea Mudang and Pansu (6)”의 꼬리에 “계속(To be continued)”이라고 덧붙였지만, 직접 『코리아 리뷰』를 뒤져보았으나 후속 글을 찾을 수 없었다.

32) “The Korea Mudang and Pansu (1)”, p.145.

“점술가(fortune-teller)” 등 다양하게 지칭되는 무당과 판수가 그들이다. 무당은 고대 기자조선 시절의 강신술(necromancy)에서 유래되어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한자로 “속인다(deceive)”라는 뜻을 가진 ‘무(巫)’와 “무리(company)”를 뜻하는 ‘당(黨)’의 결합어이다, 판수는 “결정한다(decide)”라는 한자 ‘판(判)’과 “운명(destiny)”으로도 풀이되는 한자 ‘수(數)’의 합성어이다.<sup>33)</sup> 무당이 주로 하층민 여성 출신에서 선별되었다면, 그녀보다 좀 더 높은 지위의 대접을 받는 판수는 눈먼 남성이 그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무당의 주요 업무가 ‘굿(kut)’이라면, 판수의 일상 업무는 ‘점(chum)’이다. 저자는 아마도 ‘굿’이라는 용어가 토박이 한국어에서 파생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토론했다.<sup>34)</sup>

무명의 저자(또는 헐버트)는 무당과 판수가 수행하는 다양한 굿과 점이라는 의례를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상세하게 묘사한다. 지면을 아끼기 위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무당은 ① 병자의 치유 굿거리, ② 죽은 사람을 위무하는 살풀이, ③ 물과 관계된 사람/직업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용신굿(dragon spirit seance), ④ 산신령의 보호를 기원하는 산굿(mountain incantation) 또는 산신굿(mountain spirit incantation) 등을 주관한다. 판수의 특기는 미래 재앙을 방지하고 복을 부르는 예언이다. 이를 위해 그가 행하는 ‘점(chum)’은 도구와 방법에 따라 산통점(dice box divination), 돈점(money divination), 책점(book divination)이라는 세 종류로 구분된다. 산통점이 제일 하급이라면, 전문 점쟁이가 보는 돈점이 그 윗 단계이고, 명리학에 밝은 선비가 취미 삼아 봐주는 사주풀이 책점이 ‘더 높은 과학적인’ 방식이다.<sup>35)</sup> 이 시리즈의 저자는 한국무속에 관한 자신의 매우 깊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과시하듯이, 무당이 행하는 용신굿은 그 대상이 고기잡이배, 장사하는 상선(商船), 강을 건너 주는 나룻배, 군사용 배 등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고, 일 년에 두 차례 노들강변에서 운행하는 나룻배를 위한 굿을 현장에

33) Ibid., p.145.

34) Ibid., p.146.

35) “The Korea Mudang and Pansu (5)”, *The Korea Review* Vol. 3, 1903.8, p.344, p.346.

서 본 것처럼 꼼꼼하게 서술한다.<sup>36)</sup>

성공회 신부 세실 하지(Cecil H. N. Hodges)의 관찰에 따르면, 식민시대 초반까지도 한국의 신화와 민담은 채집·분석하려는 ‘심각한 노력’의 부족으로 “가장 빈약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가 1914년에 「한국 신화와 민담에 관한 연구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영국왕립아세아학회보』에 발표한 배경이다.<sup>37)</sup> 하지는 이 주제에 동료 선교사와 전문가가 ‘의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과 서양의 사상과 문명에 현혹되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리석고 실속 없는’ 옛 관습과 민담을 경멸하고 현재 식민지로 전락한 책임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들의 정신적 뿌리에 대한 탐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낯선 땅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로서 포교의 대상인 ‘원주민’의 ‘성격의 형성과 생각·자기표현 양식의 형상’을 감정입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전통과 관습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셋째, 다른 피부 색깔이나 신앙 체제와 관계없이 신화와 영웅담에 투영된 역사 발전의 자취와 흐름을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저변에 깔린 인류의 통합성(the underlying unity of the human race)”과 어떻게 황인, 백인, 흑인 등이 한 몸통으로 발전을 향한 같은 주요 경로를 따라 움직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sup>38)</sup>

한국 신화와 민담에 대한 ‘긴급하고도 절대적인’ 탐구의 당위성을 강조한 하지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일단의 동료 서양 선교사들이 30년 전부터 한국속담과 민담 및 설화 모음을 간헐적이지만 지속해서 수행해 왔었다. 알렌이 1889년에 한국 민담 모음집을 뉴욕에서 출간한 것에 추가하여, 1913년에는 게일이 책임 편집·번역하여 한국 민담을

36) “The Korea Mudang and Pansu (3)”, *The Korea Review* Vol. 3, 1903.6, pp.258~260.

37) Cecil H. N. Hodges, “A Plea for the Investigation of Korean Myths and Folklor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 1914, pp.41~53. 이상훈의 짧은 해설과 함께 실린 이 글의 번역·요약문은 이상훈 외,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 1: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00~25년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280~288쪽 참조.

38) Hodges, “A Plea for the Investigation of Korean Myths and Folklore,” pp.41~42.

종합적으로 수록한 성과물인 『한국의 민담』을 영미 학계에 잇달아 선보였다.<sup>39)</sup> 선행연구에 대한 하지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현지인의 ‘집 단정신자세(망탈리테)’를 잘 이해하여 성공적인 선교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민속학적인 배경지식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한국에서 활약했던 서양 선교사 중에 매우 드물게 대학교(영국 옥스퍼드 세인트존스 칼리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던 그는 일종의 비교 문화인류학·민속학의 시각으로 한국 신화와 민담을 분석하여 인류 문명의 공통 분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에 따르면, 신라 왕국의 창시자 박혁거세가 ‘알(Egg)’을 깨고 탄생했다는 건국 신화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고대 신화와 닮은 꼴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은 ‘잉태와 풍요의 상징물’로 공유되는데, 보르네오의 카얀 부족(Kayan Borneo)은 흉년이 들면 알을 제물로 바쳐 땅의 번식력 회복을 기원했다. 기독교에서 행하는 부활절 축제도 달걀을 새로운 삶의 상징으로 섬기는 원시 관습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sup>40)</sup> 요약하자면, 한국 청년들의 자기 전통 올바르게 알기라는 교육적인 차원, 효과적인 선교 사업 변장을 위한 실용적인 필요성, 시공간을 횡단하여 인류 문명의 진정한 발전 경로와 ‘궁극적인 진리(the Ultimate Truth)’ 탐구라는 삼중의 의무가 한국에 체류하는 선교사·학자의 어깨 위에 걸린 것이다.

### 3. 존스·헬버트와 민속연구의 확장과 심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1887년에 조선을 찾은 존스는 한국 종교의 뿌리와 특징을 파고들어 연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존스는 헬버트와 지적 동반자 관계를 결성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고유한 성격과 독창성을 전파했다. 존스는

39) J. S. Gale trans., *Korean Folk Tales: imps, ghosts and fairies*, New York: J. M. Dent & Sons, 1913. 참조.

40) Hodges, “A Plea for the Investigation of Korean Myths and Folklore,” p.45.

“한국 영웅들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중국적이지 않다(non-Chinese)”라고 주장했다. 신라—옛 명칭으로는 ‘계림(鷄林, Hen Fores)’—의 창시자 박혁거세와 고구려 건국 영웅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건국 설화는 “한국민담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그는 꼽았다.<sup>41)</sup> “한국속담도 압도적으로 한국적”이라고 존스는 단언했으며 중국으로부터 빌려온 경우에도 그것(속담)을 ‘한국화(Koreanized)’했다고 강조했다. 위대한 영국 시인이 유럽대륙에서 창작된 원본 작품을 자기만의 플롯과 드라마로 재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했다. 막걸리 같은 발효 음료와 고춧가루 같은 매운 양념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생활도 중국인과는 전혀 다르므로 한국인은 “독창적인 고안자(the ingenious contriver)”라고 존스는 추켜세웠다.<sup>42)</sup>

존스가 1902년에 “한국인들의 심령 숭배”라는 제목으로 『영국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트랜잭션』에 게재한 글은 한국 정신세계를 심도 있게 탐구한 결정판이다. “한국인들은 과연 종교를 소유한 민족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서양 종교학자와 문화인류학자는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이와 달리 존스는 한국인은 ① 자기보다 우월하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② 인간과 신적인 존재의 상호소통을 믿으며, ③ 현실적인 고통과 불행을 경감·해결해 주는 신비스러운 힘을 지지한다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종교적인 민족’이라고 긍정한다. 한국인들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라는 3개의 종교를 믿고 일상적으로 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신봉하는 종교관의 특징과 고유성은 이들 각 3개의 신앙 체제가 “나란히(side by side)” 공존하고, 서로 “겹치며(overlapped)”, “상호 침투(interpenetrated each other)” 한다는 점이다.<sup>43)</sup> 한국 사람들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각기 다른 성격과 의례를 갖는 별개의 종교라고 이론적으로 알고

41) G. H. Jones, “Korean Survival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1, 1900, pp.3~4.

42) Jones, “The Spirit Worship of the Koreans,”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I, 1904, p.48. 이상훈의 짧은 해설과 함께 실린 이 글의 번역·요약문은 이상훈의,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 1』, 2019, 336~343쪽 참조.

43) G. H. Jones, “The Spirit Worship of the Koreans”, 1904, p.39.

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 종교 시스템을 ‘혼합되고 혼란스러우며 소화되지 않는 혼성된’ 한 덩어리로 숭배하고 있다고 존스는 날카롭게 평가했다.

“한국인들의 심령 숭배”는 22쪽이나 되는 긴 분량으로 샤머니즘에 초점을 맞춰 그 기원과 기본성격 및 다양한 심령 숭배 대상을 분류한다. 존스의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샤머니즘 숭배의 첫 번째 원칙은 “인간의 운명을 통제하는 수많은 정신적·지적 존재(spiritual intelligences)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영적 존재 대부분은 물체 또는 물신(物神)으로 대변된다는 물신주의(fetichism)가 한국 샤머니즘의 중요한 특징이다.<sup>44)</sup> 이런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한국인들이 자기들 마음의 신전에서 섬기는 샤먼은 수천이 넘는 정도라고 존스는 헤아렸다. 그는 모래같이 수많고 바람처럼 날아다니는 심령들을 총 1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 심령의 관할영역과 정신세계 운행법을 설명한다.

17가지 유형의 샤먼 숭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그 이름만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오방장군(God-Generals of the Five Quarter of the Sky), ② 신장(神將, Spirit-Generals), ③ 산신령(山神靈) 또는 산신(山神, Mountain Spirit), ④ 성황당(城隍堂, Shrine or Temple of the Site of the Fortress or City), ⑤ 토지지신(土地之神, Earth Spirit), ⑥ 존신(尊神), Honourable Temple), ⑦ 도깨비(Goblins and Bogies of Korea), ⑧ 사기(사악한 귀신, Unclean Demons) 또는 음귀(淫鬼)(Tramp Spirit), ⑨ 용신(龍神, Dragon Spirit), ⑩ 성조(成造, the Ruler of the Korean’s House), ⑪ 토주(土主, Lord of Site), ⑫ 업주(業主, 한국인의 오복인 장수, 자식, 벼슬, 부귀, 평화로운 죽음을 담당하는 심령), ⑬ 걸립(乞粒, Messenger of the Gods of the House), ⑭ 문호지신(門戶之神), ⑮ 역신(疫神, Small-pox God), ⑯ 제용(除俑), Human-shaped Straw Effigy), ⑰ 삼신(三神, God of Nativity) 등등으로 존스는 분류했다.

한국인이 섬기는 17개 유형의 샤머니즘 중에서 존스는 도깨비와 용신에

---

44) Ibid., p.41.



대해서 가장 길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는 도깨비를 원래부터 별도로 존재하거나 죽은 사람이 변신한 혼령이라고 파악했다. 존스는 제물포에 사는 한 소녀를 홀려 병들게 한 3명의 도깨비—불에 타죽고 물에 빠져 죽은 여자 2명과 처형당한 남자 1명—를 무당이 쫓아내서 치유한 사례를 직접 조사할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쏟았다. 도깨비는 민담의 단골 소재이고 그것과 직접 연관된 미신적인 관행이 있으며, 또 도깨비를 쫓아내는 의례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한국 샤머니즘에서 ‘근본적인 중요성(prime importance)’을 갖는다.<sup>45)</sup>

그리고 한국에서 용은 ‘충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신화의 주인공이다. 서양에서는 앵글로색슨족이 브리튼을 침입할 때 용을 새긴 방패와 깃발을 휘날렸고, 북유럽의 켈틱 민족이 용을 왕권과 통치권의 상징물로 고귀하게 여겼던 것과 한국인의 용신 숭배는 비슷하다고 존스는 비교 신화적인 지식을 뽐냈다.<sup>46)</sup> 도깨비처럼 용도 한국 민담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재이며 한국 소설의 단골 동물이다. 또한 용을 특별한 재능을 소유한 아이의 출산을 알리는 전령이자 행운과 부귀영화의 상징물로 환영하는 한국 사람은 ‘용(龍)’ 자를 넣어 자손들 이름을 짓는 관습이 있다.

주목할 점은 존스의 이 글이 책상머리에 앉아 참고문헌을 뒤져서 쓴 것이 아니라 ‘발품을 팔며 전국을 현장 답사하면서 얻은 산지식’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인들의 심령 숭배” 이곳저곳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면, 존스는 산신령을 모신 가장 모범적인 신당이 있는 연안의 산성을 답사하여 잘 건축된 산신각 안에 모셔진 조선 위인들(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 침략자를 맞서 싸웠던 영웅들)의 초상화를 직접 봤다. 서낭당을 지나는 사람마다 나무 밑 돌무더기 위에 자신이 주운 돌을 올리고, 여행 중에 뱀의 원한을 피하고자 제단 앞에 침을 뱉는 것을 그는 여러 차례 보았다. 추운 야밤에 여행할 때 짐꾼이 잔뜩 공포에 떨다가 새벽 수탉 울음소리에 안심하는 이유는 모든 악령과 도깨비는 수탉울음 소리와 함께 사라지므로 이

45) G. H. Jones, “The Spirit Worship of the Koreans”, 1904, pp.49-50.

46) Ibid., p.54.

제는 안전하다고 말했다는 존스가 직접 겪은 에피소드를 기록했다.<sup>47)</sup> 이런 실증적인 사례들이 잘 보여주듯이, 한국인의 마음 유전자에는 샤머니즘이 각인되어 있어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용과 도깨비가 부리는 미신적인 물신주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존스는 결론지었다.

존스가 본인의 건강 문제로 1903년에 미국으로 긴 안식년을 떠나면서 한국민속 연구를 잠시 중단했을 때, 그 배턴을 이어서 달린 사람이 헐버트였다. 그는 한국에서 얻은 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랜디스의 뒤를 이어 속담 채집과 풀이 작업을 계속했는데, 3차례에 걸쳐 『코리안 리포지터리』에 소개한 한국 속담 75편이 그 성과물이다.<sup>48)</sup>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멘다.”라는 첫 번째 속담으로 시작하여 “월님이 아전의 소매에 들었다.”라는 속담으로 마무리했다.

한국속담에 대한 짤막한 직역에 그쳤던 랜디스와는 달리, 헐버트는 짧은 속담에 담긴 깊고 오묘한 뜻을 제법 길게 해설했다. 장황하고 지루한 유교적 가르침과는 대비적으로, “날카롭게 정의되고, 명백하게 흥미를 띠며, 깔끔하고 신랄하게 표현”되는 속담에는 “더 높은 진실(the higher truth)”과 “뛰어나게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있다고 헐버트는 주목했다.<sup>49)</sup> “신은 구체적인 곳에 존재한다”라는 서양 속담을 빌린다면, 한국속담의 장점과 우수성은 유교와 같은 낡고 형이상학적인 설교가 아니라 일상적이며 구체적인 교훈을 곱씹어 보게 한다는 점이다.

『코리안 리포지터리』가 폐간된 이후에도 헐버트의 한국속담 채집은 『코리아 리뷰』에서 계속되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4개 속담을 추가하면서 이 작업을 일단락했다.<sup>50)</sup> 헐버트는 한국말에 속담, 지혜로운 표현(bon

47) Ibid., p.44, p.47, p.59.

48) H. B. Hulbert, “Korean Proverbs”, *The Korean Repository*(1895,8), (1897,8), (1897,10), (1897,12); 『코리안 리포지터리』 1895년 8월호에 ‘Peza’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한국속담」은 2년 뒤 1897년 8월에 같은 제목으로 헐버트가 쓴 글과 기본적으로 같다. 앞의 글이 12개의 한국속담을 영어로만 옮겨서 소개했다면, 뒤에 글은 해당 속담의 한국어 표현을 첨부하고 31개의 속담을 추가했다는 차이가 있다.

49) H. B. Hulbert, “Korean Proverbs,” *The Korean Repository* Vol. 3, 1897,8, p.284.

50) H. B. Hulbert, “Korean Proverbs,” *The Korea Review*(1901,2) & *The Korea Review*(1901,9). 호머 헐버트, 김동진 편역,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헐버트 내한 130주년 기념 ‘헐버트 글 모음』(참좋은친구, 2016)은 『코리아 리뷰』 1901년 2월호에 24편, 같은 해 9월호에 25편의 속담이

mots), 풍자와 경구(epigrams) 등이 풍부한 것은 국민 대부분이 한문이 주도하는 문자문화의 특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딱딱하고 어려운 문어체 언어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어를 맛깔스럽게 만든 것이 속담이라고 설명한다.<sup>51)</sup> 양반과 유교로 대변되는 고급문화에서 제외된 하층민이 즐겨 사용하는 대안적인 소통 매체이다. 그뿐만 아니라, 속담은 한국인들의 ‘기질(temperament)’을 오롯이 담은 그릇이므로 그들의 정신세계에 가깝게 다가가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있다고 헐버트는 확신했다.<sup>52)</sup> 다시 말하면,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공유한 ‘망탈리테(mentalité)’와 그 속마음에 접속하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속담이라는 뜻이다.

헐버트의 해석에 따르면, “지름길에 도적 맞는다.”라는 속담에는 한때 ‘금단의 나라’로 불리었던 조선의 보수주의적 심성이 압축적으로 담겨있다. 익숙한 먼 길로 돌아가는 어려움은 이미 밟아 다져진 길을 떠나 낯선 지름길로 가로질러 가면서 당하는 낭패에 비하면 더 참을만하다는 뜻이다. 의역한다면, 뽕뽕 단았던 나라의 문을 서양 열강에 갑자기 개방하여 근대화/서양화로 가는 빠른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속담으로, “모든 한국속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the most characteristic) 것의 하나”로 헐버트는 꼽았다.<sup>53)</sup> 또 다른 사례로, “샌님이 종만 업신여긴다.”라는 속담을 통해 한국적인 삶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다. 가난하지만 경제활동을 천시하는 선비가 애먼 노비에게 눈을 흘기는 허위의식의 표현이다.<sup>54)</sup> 속담의 직설적이고 짧은 기표(記標)는 한국인의 복잡한 인생관과 특유의 기질을 풍자적으로 말해주는 두터운 기의(記意)를 이해해야만 한다.

헐버트가 선구적으로 주도했던 속담 채집과 뜻풀이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한자로 요약된 속담과 순 한글 속담을 모

각각 소개되었다고 기록했다. 374~386쪽 참조. 그러나 필자가 영인본으로 확인한 결과, 2월호에 8편, 9월호에 26편이 각각 실렸다.

51) H. B. Hulbert, “Korean Proverbs,” *The Korea Review* Vol. 1, 1901.2, p.52.

52) Hulbert, “Korean Proverbs,” *The Korea Review* Vol. 1, 1901.9, p.392.

53) Hulbert, “Korean Proverbs,” *The Korean Repository*, 1897.8, p.286.

54) Hulbert, “Korean Proverbs,” *The Korea Review* Vol. 1, 1901.2, p.53.

두 모아서 그 의미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이 송경(牛耳誦經: 쇠귀에 경 읽기)’,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 ‘송무백열(松茂栢悅: 소나무가 성공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 등과 같은 한자 사자성어 속담을 순 한글 속담과 구분 없이 모았다. 1900년 이전에 간행된 대부분의 속담집이 소재와 표현의 지속성을 순화하려는 의도로 주로 문어체 한역으로 구성(혹은 재번역)된 형식<sup>55)</sup>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한자·한글 속담을 섞어 모은 헐버트의 작업은 이행기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랜디스가 채록한 한국속담에서 한자어 속담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한자에 능통한 헐버트의 학문적 능력이 빛은 차이점일까. 『코리안 리포지터리』에는 한자어 속담이 드문드문 등장하지만, 『코리아 리뷰』에 매우 예외적으로만 한자어 속담이 소개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20세기 들어 한국속담 채집이 순 한글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랜디스와 헐버트가 같은 속담에 대해 다른 뜻풀이를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랜디스가 인용한 “강철(별똥별)이 간 곳에는 가을도 봄이다.”라는 속담을 헐버트는 “강철이 간 데는 봄도 한 가지 가을도 한 가지다.”라고 좀 더 한글 친화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랜디스는 유성이 떨어지는 곳에 흉년이 든다는 의미가 있는 이 속담은 ‘가난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지 가난하다.’라고 의역된다고 설명했다. 헐버트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곳에는 모든 식물과 곡식이 불타버리는 것처럼, 운이 없는 사람은 불행과 재앙을 몰고 다니므로 기피 대상’이란 뜻이라고 다르게 해석한다.<sup>56)</sup> 또한 랜디스는 “암탉이 운다.”라는 속담은 “자연스러운 것에 매우 반대되는 현상”을 지칭한다고 설명하지만,<sup>57)</sup> 헐버트는 한자로 표기된 ‘빈계신명(牝鷄晨鳴)’을 ‘주제넘게 남성처럼 행동하여 남편의 권리를 넘보는 아내’를 비꼬는 말이라고 설명한다.<sup>58)</sup> 한국속담에 대한 두 사람의 살짝 다른 해석과 교훈 찾기는 식민시대

55) 박미경,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속담연구 고찰」, 『일본문화학보』 28, 2006, 451~452쪽.

56) Hulbert, “Korean Proverbs,” *The Korean Repository* Vol. 4, 1897.12, p.454.

57) Landis, “Some Korean Proverbs,” *The Korean Repository* Vol. 3, 1896.10, p.222.

58) Hulbert, “Korean Proverbs,” *The Korean Repository* Vol. 4, 1897.10, p.370.

에 일본인 관제 학자와 한국인 지식인이 ‘따로 또 같이’ 진행하는 속담 채집·뜻풀이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서양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초기 단계의 한국 민담 채집과 조사연구에서도 헐버트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는 『코리안 리포지터리』와 『코리아 리뷰』에 많은 한국민담을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민담이 차지하는 중요한 문화인류학-민속학적 의미를 『트랜잭션』에서 학술적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리 말하자면, 헐버트는 동료 선교사 알렌과 게일의 뒤를 쫓아서 번안한 한국민담 모음집을 1925년에 미국에서 출판했다.<sup>59)</sup> 『마법사 엄지』는 헐버트가 “독자 수준에 맞게 윤색”하고 “미국의 독서 취향을 위해 각색”해서 출간한 독특한 서적이다.<sup>60)</sup> 한국민담 전반에 관한 그의 깊은 지식과 이해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민담에 대한 헐버트의 진지한 학문적인 관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런 어렵고도 중요한 물음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사료가 다행히 있다. 헐버트가 1893년 시카고 세계박람회 기간에 개최된 ‘컬럼비아 세계박람회 국제민담 학술대회(The International Folk-Lore Congress of World’s Columbian Exposition)’에서 발표한 “조선의 민담”이 그것이다.<sup>61)</sup> 이 발표문에서 헐버트는 조선 민담/설화의 특징과 그 대표적인 유형을 ‘심도 있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기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가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2)</sup> 한민족의 건국 신화와

59) Hulbert, *Omjee the Wizard Korean Folk Stories*, Springfield, Massachusetts: Milton Bradley Company, 1925.

60) 장경남, 「호머 헐버트의 [Omjee, The Wizard-Korean Folk Stories] 연구」, 2021, 11쪽, 34쪽.

61) 호머 헐버트, 김동진 옮김,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헐버트 내한 130주년 기념 ‘헐버트 글 모음』, 2016, 338-345쪽; 김동진은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 원고를 확보”했다고 말하지만,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덧붙이자면, 헐버트는 국제민담 학술대회 기간에 짬을 내서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전시한 한국관을 구경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육영수, “Fin de Siecle Korea as Exhibited at the World’s Columbian Exposition of 1893 in Chicago: Revisited”,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4, 2011. 참조; 이 글에서 필자는 “한국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출판 대상 전경원과 담화를 나눈 인물이 그리피스라고 추측했는데, 늦었지만 수정되어야 할 사실적 오류이다.

62) 헐버트, “조선의 설화”,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참좋은친구, 2016, 339쪽.

건국 영웅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한국 민담의 원류(原流)와 지류(支流)를 유형화하거나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원전에 시작된 한민족의 이동 경로와 한반도 정착 과정을 추적하여 조선의 전설/신화를 ‘북부 설화’와 ‘남방 설화’로 구분하고, 그 유형을 13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한다. 헐버트는 고대 영웅 탄생에 대한 세 가지 설화와 다양한 유형의 민담 7개를 청중에게 들려주면서 “조선 설화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소개”를 마무리했다.<sup>63)</sup>

위 사료에 따르면, 한국민담에 관한 헐버트의 심중한 관심과 조사는 1893년 시카고 세계박람회 기념 학술대회 원고를 준비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발표문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한국 신화-민속-풍습의 독창성을 발굴하여 국제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국 문명을 ‘중국 문명을 추앙하고 모방한 파생물로 오해하는 서양 독자들을 계몽시키려는 것’이 헐버트의 목표였다고 짐작된다. 이러한 의도로 헐버트는 그가 편집자를 맡았던 『코리아 리뷰』에 한국 민담을 꾸준히 소개했다. 개별 제목으로 수록된 총 41개의 민담 중 절반이 넘는 21개의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민담을 소개한 ‘숨은 필자가 헐버트라는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sup>64)</sup>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민담 학술대회의 준비 작업과 그 후 한국 민속-민담에 관한 저술 작업의 종합적인 성과물이 헐버트가 1902년에 발표한 「한국의 민담」이다.<sup>65)</sup> 1893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문과 같은 제목으로 『트랜잭션』에 17쪽 분량으로 실린 이 글은 ‘한국민담의 종류, 특징, 그 역사적 성격 등을 추적·분석한 최초의 종합적인 비평문’이라는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위에서

63) 헐버트의 발표문은 추약되어 ‘국제민담 학술대회’ 자료집에 실렸다. 1893년 자료집의 편집자는 헐버트가 발표한 7편의 설화 제목을 끝에 열거하고, 게재되지 못한 설화 원고는 “서울에서 조선 설화에 관한 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 헐버트 씨에게 돌려보냈다.”라고 언급했다. 헐버트, “조선의 설화”,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2016, 345쪽; 직접 인용문은 이 글을 옮긴 김동진의 평가이다. 339쪽 각주 1번 참조.

64)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이유정, 「호머 헐버트의 한국 민속연구와 영역 설화집으로서의 『THE KOREA REVIEW』」, [표 2]: 237~249쪽 참조.

65) H. B. Hulbert, “Korean Folk-Tale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I Part. 2, 1902, pp.45-79. 정경란의 짧은 해설과 함께 실린 이 글의 번역·요약문은 이상훈 외,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 1』, 2019, 280~288쪽 참조.

간략히 스케치했듯이, 이전에 간행된 『트랜잭션』과 『코리아 리뷰』에서도 매우 드물게 조선 민속에 대한 글들이 실렸지만, 「한국민담」은 고대에서 현재까지 민간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각가지 민담의 형식과 종류, 내용과 등장인물, 교훈 등을 ‘두텁게 묘사’한 문제작이다.

헐버트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아직은 모호한 개념인 ‘민속(folk-lore)’은 민담, 민요, 미신, 전설, 속담, 수수께끼 등과 같이 그 기원이 모호하고 잡다한 성격을 갖는 신생 분야이다. 문서로 서술된 역사가 실증적인 방법으로 과거에 대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분석과 전망을 제공한다면, 민속은 ‘공식 되지 못한 역사(which do not bear the hall-mark of history)’로 추방·강등된 흥미로운 인종학적 유물과 풍습이 보관된 “후미진 다락방(the back attic)”이다.<sup>66)</sup> 공식 역사에 비하면 민속이 하류 취급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중의 삶이 정녕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응접실에서 따분한 실록이나 연대기를 읽는 대신에, 가정과 가족의 일상생활 속으로 안내해 주며 ‘민중의 가슴’으로 접근시켜 주는 민속의 보물창고를 찾아 감춰진 다락방을 탐색해야 한다고 헐버트는 강조했다.<sup>67)</sup>

민속학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특히 ‘민담(folk-tales)’에 초점을 맞춰 조선 민중을 관통하는 ‘망탈리테’의 구조와 주요 성격을 파악하려는 것이 「한국민담」의 목표이다. 헐버트는 주제에 따라 한국의 민담을 유교적, 불교적, 샤머니즘적, 전설적, 신화적, 일반/기타(general or miscellaneous) 등 6개의 카테고리 분류한다. 헐버트가 채집·편집하여 요약·분석한 각 범주에 등장하는 이야기거리와 주인공에 대한 상세한 비평과 해석은 민족·민담 전문가의 몫이지만, 다양하고도 복잡한 민담에 투영되는 조선인의 집단적인 감정 세계와 일상생활사를 간단히 스케치해 보려는 것이 아래 내용이다.

헐버트는 한국민담의 우선적인 특징을 유교 사상에 대한 불교사상의 ‘승리’로 꼽는다. 그는 민담의 서사 분석과 등장인물 해설을 통해 유교는 조선인 감정(이성)구조의 표면에 머무르는 데 그쳤지만, 불교는 조선인들의 감정 교

66) Hulbert, "Korean Folk-Tales", p.46.

67) Ibid.

육에서 “한국적인 삶의 여러 단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sup>68)</sup> 헐버트는 조선 민담을 자세히 뜯어보면 불교적인 요소와 유교적인 내용이 뒤섞인 이야기들—죽어가는 아버지를 구하려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 꿈속에서 불교 스님이 전해준, 인도의 사찰에 명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험한 모험 끝에 아버지를 살린다—이 많지만, 두 종교 사이의 경쟁에서 최종적인 승자는 불교라고 헐버트는 생각했다.

헐버트가 주목했던 한국민담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조선 특유의 샤머니즘적인 요소이다. 불교와 유교가 수입된 낯선 정신세계인 것과 달리, 조선 민담에 나타나는 샤머니즘적인 이야기는 ‘조선 마음/감정의 토속적이며 기본적인 요소들의 산물’이라고 그는 파악했다.<sup>69)</sup> 특히 귀신이나 도깨비, 산과 바위 등에 깃들인 영혼을 믿는 혼령 숭배의 독창성은 고대 헬레나 사람들이 전 세상 신령들을 모셨던 판테온(pantheon) 못지않다고 높이 평가했다. 자연 만물에 깃든 정령을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애니미즘과 물신주의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정서를 지배하는 토속적인 믿음이며 미신이라고 헐버트는 설명했다.

헐버트는 속담과 민담에 투영된 한국인 특유의 집단적인 감성 구조(망탈리테)를 서구의 정신세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한국적인 상상력은 매혹적인 그리스 신화를 탄생시켰던 환상의 위대한 비상(飛翔)에 비금갈 만큼 크거나 경쾌하다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먼저 말해야 한다. 북유럽 신화의 웅망한 영웅으로 진화할 정도로 [한국적인 상상력이] 씩씩하고 본질적이지도 않았다. 그리스, 로마, 스칸디나비아의 팡테온은 거대하고 장엄하게 보이는 인물들로 가득하지만, 한국의 신전은 거의 모든 슈퍼히먼 또는 잉여 인간(extra-human) 매개자들이 어쩐지 인간보다 못한(less than man)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채워졌다. 이들은 때로는 [인간보다] 더 교활하고 종종 [인간보다] 더 강하지만, [인간보다] 더 고귀하거나 더 가치가 있지는 않다. …그리스 신화가 망원경적

68) H. B. Hulbert, "Korean Folk-Tales," p.53, p.56.

69) Ibid., p.58.



(telescopic)이라면, 한국 신화는 현미경적(microscopic)이다. …서구에서는 형태가 모든 것이고 세부 사항이 이차적인 요소라면, 동양에서는 세부 사항이 제일 중요하고 형태는 단지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배경일 뿐이다.<sup>70)</sup>

남성적이고 진취적인 유럽의 신화적 영웅과 다르게 한국 신화의 영웅과 민담의 주인공은 쪼잔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근시안적 인물이라고 비교했다. 서양 영웅의 후예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역사의 흐름과 진보를 주도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미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면과 도깨비를 승배하는 한국인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계사적인 변화에 눈을 감고 그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 헐버트의 결론이다. 서양 선교사들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유했던 오리엔탈리즘에서 헐버트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일까.

#### 4. 맺음말

서양 선교사가 근대한국 민속학의 여러 장르—속담, 민담, 세시풍속, 민속놀이, 무속 등—에 걸친 자료 발굴조사와 주제별 분석비평 발전에 이바지했던 점을 위 2장과 3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가 지금까지도 양적·질적으로 매우 빈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으므로 그 빈틈을 메우고 약한 고리를 땀질하여 초창기 민속연구의 종합적인 윤곽과 지배적인 경향을 서술하려고 필자는 노력했다. 근대한국학의 계보학적인 관점에서 논문이 갖는 의의/중요성 및 한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한 세대 동안 남긴 한국 민속연구의 발자취는 생략하거나 무시해도 될 ‘타자의 시각’이 아니라 꼼꼼히 재발견되어야 할 한국 근대민속사의 전사(前史)이며 도입부이

70) Ibid., pp.73~74.

다. 이들이 한국민속에 쏟은 관심과 연구는 이국땅에서의 호사스러운 취미생활이 아니라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섰다. 서양 고전과 당대 학술적 흐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국민속의 역사적 성격과 특징을 비교문화사와 문화인류학적 시각으로 예리하게 비평했다. 존스가 쓴 「한국인들의 심령 숭배」와 헐버트가 저술한 「한국의 민담」은 오늘날에 다시 읽어봐도 정서적인 ‘한국다움(Korea-ness)’을 크로키와 세밀화 기교로 분석한 걸작이다. 특히, 한국 샤머니즘의 유형에 대한 존스의 분류법과 한국민담의 종교적인 색깔에 근거한 헐버트의 분류 방식은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한국 민속학에 도입·적용된 ‘최초의 유형화 작업’이었음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양 선교사들이 ‘근대한국 민속연구 제1의 물결’을 총체적으로 견인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둘째,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민속연구에 끼친 공헌과 별개로 이들의 채집 활동과 저술 작업에서 드러나는 서구중심주의적인 편견에 눈 감을 수는 없다. 19세기 후반에 새로운 분과학문으로 등장한 민속학은 전통과 근대, 문명과 야만, 중심·중앙과 지방·향토, 이성과 미신, 기록문화와 구술문화 등의 이분법적인 구별 짓기를 통해 그 학문적 정체성을 구성했다. 앞의 속성으로 대면되는 근대적 서양문명이 뒤의 특질로 묘사되는 전근대적 비-서양문명을 발굴·포섭·보존하여 후자를 인류 문명의 진화론적인 연쇄 사슬에 꿰맞추는 것이 민속학의 존재 이유였다. 한국민속에 대한 지식수준의 차이와 애증의 높낮이에도 불구하고 알렌과 아담스, 존스, 헐버트 등은 서구 우월적인 민속연구의 파이오니어(pioneer)이며 필드-워커(field-worker)였다. 무속 세계를 호령하는 무당과 관수에게 복종하여 귀신과 산신령을 무서워하고, 점쟁이 예언을 믿어 미래를 운명적으로 저당 잡히고, 돌팔매 싸움 같은 폭력적인 축제로 일상의 무료함에서 탈주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해결 대신에 피와 속임수로 생존하는 후진적인 한국인/토착민의 ‘정신 개조’를 이들은 공통적인 선교 사명으로 다짐했다.

셋째, 서양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이끌었던 ‘민속연구 제1의 물결’은 근대한국학 계보의 주체(들)와 갈래 및 그 상호관계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 민

답을 채집해서 제공했던 고평익과 이정운 같은 한국인 협력자·번역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서양 선교사의 민속연구는 덜 생산적이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양 선교사가 주제별·장르별로 분류/유형화해 두었던 기본바탕이 없었다면, 식민시대 일본 관학자와 한국 지식인이 '따로 또 같이' 펼쳤던 한국학/민속학은 허약하거나 미성숙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양 선교사가 선창했던 '제1의 물결'과 겹쳐 서로 밀고 당기며 일본 관제 학자가 식민 담론으로 (재)창출한 '제1.5의 물결', 이에 저항하는 몸짓으로 한국 지식인이 다시 띄운 '제2의 물결'이 이어졌다. 그 연속과 단절의 주름살이 만드는 계보학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다시 탐험하기 위해서는 식민주의 vs. 민족주의라는 두 바퀴에 올라타서 지금도 거침없이 달려가는 '민속 열차'를 그 궤도에서 탈선시켜야 한다. 결론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근대한국 민속학의 족보를 헝클고 혼성적으로 뒤섞어서 재발명해야 할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 참고문헌

### 1. 사료

*The Korean Repository*, 1892~1898.

*The Korea Review* (Homer B. Hulbert Editor), 1901-1906.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00~1940.

### 2. 단행본

김일권·최석영·정승교, 『한국 근현대 100년과 민속학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로제 샤흐티에, 백인호 옮김, 『프랑스혁명의 문화적 기원』,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손진태, 이시준 외 편역, 『조선민담집』, 제이앤씨, 2013.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역, 『선교사와 한국학』,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22.

이상훈 외,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 1: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00~25년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역, 『탐험가, 외교관, 선교사: 서구 한국학의 형성 주체와 문화적 토양』, 소명출판, 2022.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저, 『한국학 학술용어』,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호머 헐버트, 김동진 편역,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헐버트 내한 130주년 기념 ‘헐버트 글 모음’』, 참좋은친구, 2016.

Allen, Horace N., *Korean Tales: Being a Collection of Sto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Folk Lore together With Introductory Chapters Descriptive of Korea*, New York: G. P. Putnam, 1889.

Gale, J. S. trans., *Korean Folk Tales: imps, ghosts and fairies*, New York: J. M. Dent & Sons, 1913.

Griffis, William E., *Fairy Tales of Old Korea*,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Publishers, 1911.

Hulbert, H. B., *Omjee the Wizard Korean Folk Stories*, Springfield, Massachusetts: Milton Bradley Company, 1925.

Rabinow, Paul.,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 3. 논문

김승우, 「19세기 말 의료선교사 엘리 랜디스(Eli B. Landis)의 한국민속 연구와 동요 채록」, 『한국민요학』 39, 2013.

박미경,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속담연구 고찰」, 『일본문화학보』 28, 2006.

박일영, 「독일인 선교사가 본 20세기 초 한국의 민속-한국문화 민속을 바라본 그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51, 2013.

신상필, 「파리의방전교회에 남긴 동서양 문명교류의 흔적-*Grammaire Coréenne*(1881) 소재 단형 고전서사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2014.

안상훈, 「백두산 설화의 전승과 연행양상-기린-미하일로프스키의 조선 기행문을 중심으로-」, 『중앙어문학회 어문논집』 61, 2015.

- 오윤선, 「근대 초기 한국설화 영역자들의 번역태도 연구-Allen, Griffis, Hulbert, Carpenter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3, 2012.
- \_\_\_\_\_, 「19세기 말~20세기 초 영문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연구」, 『우리문학연구』 41, 2014.
- \_\_\_\_\_, 「외국인의 한국설화 다시쓰기 양상: 호랑이 소재담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3, 2014.
- 유경민, 「한국어교육의 오늘: 개신교 선교사가 정리한 한국어 속담과 수수께끼 연구 -외국인의 한국 언어문화 습득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59, 2014.
- 육영수, "Fin de Siecle Korea as Exhibited at the World's Columbian Exposition of 1893 in Chicago: Revisited",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4, 2011.
- \_\_\_\_\_, 「서양 선교사가 주도한 근대한국학의 발명과 국제화, 1870년대~1890년대」, 『역사민속학』 55, 2018.
- \_\_\_\_\_, 「미국-영국 선교사와 외교관이 주도한 근대한국학 전문화와 시스템 만들기, 1900~1940년: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Korean Branch* 분석을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61, 2021.
- \_\_\_\_\_, 「19세기 말~20세기 전반 서양 선교사들의 조선 문화예술 담론 만들기」, 『한국사학사학보』 46, 2022.
- 이영미,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1901~1906) 연구」, 『역사민속학』 60, 2021.
- 이유정, 「호머 힐버트의 한국 민속연구와 영역 설화집으로서의 『THE KOREA REVIEW』」, 『비교한국학』 29-2, 2021.
- 임정지, 「고전서사 초기 영역본(英譯本)에 나타난 조선의 이미지: Korean Tales와 Korean Folk tales의 경우」, 『돈암어문학』 25, 2012.
- 장경남, 「호머 힐버트의 [Omjee, The Wizard-Korean Folk Stories] 연구」, 『기독교와 문화』 16, 2021.

## Western Missionaries Launching the First Wave of Modern Korean Folklore Investigation

Yook YoungSoo\*

A predominant view on the genesis of modern Korean Folklore is that it was an unfortunate queer product of competition and corroboration between Japanese bureaucrat-scholars and Korean nationalist intellectuals. Haunted by the ghost of origins, most scholars tend to ignore or underestimate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Western missionaries who collected and studied Korean folk materials ahead of Japanese and Korean scholars. This article intends to rediscover and reappraise Western missionaries' indispensable contributions to collecting and researching Korean folklore during its very embryological stage.

The main body of the article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half traces how Western missionarie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had laid the groundwork for the birth of modern Korean folklore in the various fields such as proverbs, folktales, traditional festivals, and shamanism. The latter half examines academic legacy and influence of G. H. Jones and H. B. Hulbert, both of whom played critical roles in taking shapes of modern Korean folklore, but overlooked and underestimated by most previous studies. The main sources of analysis are the English monthly/academic magazines/journal published in Korea, including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 Review*, and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The author arrives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Western missionaries were very important personnel who had constructed solid and respectable

---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Chung-Ang University

foundation of Korean folklore fields and thus worth mentioning in historiography. Second, most Western missionaries discussed in the article were not value-neutral observers but shared Western-centric prejudice that evaluated peculiar Korean folklore/tradition as inferior in the chain of cultural evolution by distinguishing modern-central-rational Western civilization from primitive-local-superstitious-oral mentalité of 'Koreaness'. Third, there remains a very difficult task of re-writing the whole genealogy of modern Korean folklore studies, which would reveal disruptive collisions and/or overlapping wrinkles existing among the First Wave launched by Western missionaries, the First-Half Wave re-fabricated by Japanese bureaucrat-scholars, and the Second Wave embraced by Korean intellectuals.

**Key words**: Modern Korean Folklore, Korean Proverb, Korean Folk Tale, Korean Shamanism, Homer Bezaleel Hulbert, George Heber Jones